

부영주택 관리 아파트 사라진 12억 수선충당금

하남부영3차 2년째 인계 안해...분양 전환 직후 남은 적립금 단 14만원 새 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횡령 의혹 제기...광산구는 과태료 부과 부영주택 광주영업소 "본사 방침", 본사는 "광주영업소 담당" 책임 회피

부영주택이 2년 넘게 아파트 특별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넘기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임대 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권한을 넘기는 과정에서 11년 동안 모아둔 특별관리비만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 광산구는 하남동 하남부영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지난달 부영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제기한 민원은 부영주택이 지난 2020년 11월 하남부영3차아파트를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적립된 12억 6800여만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에게서 걷은 관리비를 부영주택이 횡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보수 등 작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다.

이 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관리 주체인 입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관련법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아파트는 부영주택이 건설해 지난 2009년 5월 20일 준공받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매달 970여만원씩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부영주택과 광산구청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됐으며 분양 전환 당

시 12억 6800여만원이 적립됐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해당 아파트가 지난 2020년 11월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적립금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분양 전환 직후인 2021년 초 아파트가 가진 장기수선충당금은 단 14만원에 불과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주택에서 적립하는 특별관리비로 임대 주택에서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돈이다. 입주자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전달받지 못해 분양 전환이후 이월된 돈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이 텅 비는 바람에 당장 안전과 관련된 수선을 진행할 공사가 있더라도 수선금이 없어 수선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입주자들은 "수선을 위해 모아둔 돈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니 정기 수선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당장 수 십년 된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께 부영주택의 위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목록부담이라는 것이 광산구 관계자의 전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통장이 공동 명의로 돼 있어 부영주택 측에서 인계 절차를 함께 밟아줘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과태료 부과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처분 또한 부영주택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간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6월 부영주택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도색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입주자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당시 광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 문서가 누락됐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부영주택 측은 "타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협의 없이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껏 쓸 수 있던데, 왜 정당한 관리비 집행을 가로막느냐"며 반발했다고 광산구는 전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광주영업소에서는 "본사 방침", 본사에서는 "광주영업소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선관위, 기초의원 3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역 기초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 의원의 배우자,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과 낙선한 후보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혐의다.

일부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생률 일반 노동자 35배”

광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환기시설·인력제도 개선 촉구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2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발생률이 일반 노동자 보다 35배 높다"며 "급식실 환기시설과 인력제도 개선"을 촉구 하고 나섰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매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광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검진자 508명 중 약 28%인 141명에게 이상 소견이 나왔고, 이 중 폐암이 의심되는 사람은 10명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작년에 급식실 종사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지만, 교육 당국이 예산 등을 이유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도 안양) 의원 실로부터 받은 '환기시설 개선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 지역 환기시설 점검 대상 학교 253곳 모두 환기시설에 이상이 있었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과 낙상, 화상 등의 재해에 노출돼있다"면서 "대체인력도 부족해 연가나 병가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전담 대체인력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전담대체인력제도는 수개의 학교를 하나의 거점으로 묶어 대체인력을 뽑은 뒤, 한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파견하는 제도다.

한편 단체는 요구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박관현 열사 40주기 추모식

고(故) 박관현 열사 제40주기 추모식이 1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1980년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동지들과 지인, 5·18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헌화 및 분향을 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고용청, 올 중대재해법 위반 13건 중 1건 만 검찰 송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접수된 사건 13건 중 단 1건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도 군포시)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올해 광주노동청은 총 13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중 올 9월까지 단 한건만을 기소의견으로 접

찰에 송치했다. 광주청의 기소의견 송치비율은 7.7%로 경기도청(중부) 3.8%, 대구청 6.7%에 이어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이 접수부터 송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146일로 전국 평균인 약 115일보다도 30일 가량 길었다.

이 의원은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맹간제’ 농업용수 고갈 문제 해법 찾았다

광주도시공사·남구 잠정 합의

광주시 남구 압촌동 '맹간제' 농업용수 고갈문제(광주일보 10월 11일자 6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인 광주시 남구와 공사 시행사인 광주시도시공사 합의점을 찾았다.

1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도시공사와 남구는 공사비와 공사주체에 잠정 합의

했다. 15억원이 예상되는 공사에 남구가 5억원, 광주시도시공사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공사 시행은 남구가 맡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지 2양수장의 집수능력을 개선하는 공사와 가동보가 설치되고 대지 3양수장 부지 내에 양수장을 추가로 신설해 1.4km의 압송관을 통해 물을 맹간제로 끌어올 수 있어 농업용수 고갈

이 해결된다고 남구는 밝혔다.

남구는 조만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어촌공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맹간제 인근 농민들로 구성된 '대촌동 용수공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5년간 매년 대화만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서야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 특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								